책 읽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책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게다. 그런데 우울함이나 불안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읽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혹시 나 자신이 책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이 많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스스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책 읽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글_변학수

《책 읽어주는 여자》
레몽 장 지음 | 김화영 옮김 | 세계사 | 182쪽 | 값 7,000원

책을 읽어 줄 때는 분위기가 중요

사람들은 왜 책을 읽는가? 아마 지식을 얻기 위해서거나 마음의 위안을 받고 병이나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 긴장완화와 복잡한 생각을 먼 곳으로 돌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자기계발이나 직업상의 자기 발전을 위해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용기와 자극을 받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도 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병을 극복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우리들 중에 아픈 사람들은 책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 사례를 읽게 된다. 하지만 책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게다. 그런데 우울함이나 불안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읽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의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줄 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꼭 책의 내용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 누군가 책을 읽어주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촛불을 켜고 읽었다, 아랫목에서 할머니가 읽어 주었다' 와 같이 책 내용보다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를 기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독서에서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독서컨설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위기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어 주는 것을 들을 때 고조된다. 누군가 책을 읽어 주거나 책을 읽어줄 때 같이 듣는다면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독서 행위(독서심리라는 뜻)의 특이한 면을 우리는 왠지 관능적이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는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작품에서 우화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책에 투사하는 독자의 독서행위

《책 읽어주는 여자》의 주인공 마리-꽁스땅스는 서른네 살의 아이가 없는 유부녀이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녀는 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은사인 롤랑 소라에게 읽어줄 책의 리스트를 묻고, 남편인 필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녀는 고객들, 이를테면 장애를 가진 에릭, 발랄한 소녀 클로렝드, 장군 부인, 사장 미셸, 그 외에도 판사, 형사, 의사들과 만나게 된다. 모파상, 졸라, 마르크스, 보들레르, 사드, 클로드 시몽 등의 텍스트를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작품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책 읽어주는 여자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성에 눈을 떠가는 에릭은 성적인 것에 눈을 뜨며, 마르크스와 그 사상에 심취한 장군 부인은 혁명적인 면을, 퇴행한 아이처럼 그녀의 육체에만 관심을 가진 사장 미셸, 책 읽어주는 것보다는 세상에 동행할 사람을 찾는 클로렝드, 그리고 그녀를 주시하며 치죄하려는 듯한 판사, 의사, 형사. 그녀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려고 할 뿐이지만 그로 인한 관계들은 그녀를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물 자체라기보다는 책을 읽어줄 때 책에 투사하는 독자의 독서 행위(act)라고 말할 수 있다.

마리는 중립적인 '책 읽어주는 여자'로 기능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사장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부가 되기도 하고, 연대 운동을 하는 참여자가 되기도 하며, 보모가 되어 아이와 함께 놀다가 유괴자로 오인 받기도 한다. 그러니 그녀는 책 읽어주는 여자가 아니라 곧 '책 자체'가 되는 셈이며 책 읽어주는 고객의 심리적 역동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책 읽어주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곧 읽어주는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으면서 나와 읽어주는 사람간의 관계를 읽게 되고 사회와 현실을 읽어가기도 한다. 그것이 책을 읽어줄 때 좀 더 편안하게 퇴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귀의 언어는 뜨겁고 눈의 언어는 차갑다

이런 맥락에서 상처가 깊다든가,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스스로 책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서양 속담에 "귀의 언어는 뜨겁고 눈의 언어는 차갑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읽어주는 책이 훨씬 더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해 준다. 원래 인간은 책을 읽지 않았다.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읽는 것이 독백의 상태라면 읽어주는 것은 대화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치유가 고립에서 대화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누군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치유에 매우 행복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책은 아무나 읽어주어도 마찬가지인가? 그러지 않다. 앞에서 본 《책 읽어주는 여자》는 고객과 가까운 사이로 그려놓고 있지만 직업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크게 신뢰를 줄 수 없다. 가령 동화의 내용이 너무 참혹하다 하더라도, 이를 엄마가 읽어준다면 아이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용기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신뢰가 크지 않은 낯선 사람이 읽어 줄 때는 문제가 다르다. 가끔씩 무서운 얘기를 어떻게 애들에게 읽어주느냐 하는 이견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엄마가 읽어주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치유적 독서, 수용적 문학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적은 사람으로 볼진대 책을 그냥 스스로 읽게 하는 것보다는 읽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냥 책을 읽어준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신뢰를 쌓고 난 후에 읽어주는 것이 좋다.

혹시 나 자신이 책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이 많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스스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책 읽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치료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고유한 독서 내재적 마음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변학수 님은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등이 있다.